

차별없이 건강한 삶을 살 권리

「철학이란 무엇인가」와 「문화콘텐츠 데이터 분석」강의페어링

문화콘텐츠학과 3학년 201421697 오예슬, 이진희 교수님 지도

I. 연구목적

건강은 국제기구 WHO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경제적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실천도와 정보력이 편차를 보인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본적 권리를 박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차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소속 계급에 상관없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이 노력을 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와 시민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II. 건강한 삶이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친환경 음식 섭취하기, 운동하기와 같은 개인의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친환경적 인프라가 준비되어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III. 적극적 의무의 발생

피해를 안 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가장 쉬운 예는 빈곤 세계와 ‘나’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나는 빈곤이 발생하는 데에 그 어떤 악의적 행동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게 도움을 제공할 여유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적극적 의무의 발생 지점이다.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건강한 삶의 영역에 합류시키면, 도움을 제공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 양성, 환경 보존 등 부가적 효과가 생긴다. 이렇듯,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신장해주는 것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고스러움이 그들의 노력에 비해 헛되지 않는다.

성공사례

스웨덴은 자연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유지 개방, 주말 농장 운영 등 법적, 사회 복지적 안전망을 설치했다. 시민들은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나고, 건강한 삶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시민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사례로 보아 공동책임의식 공유와 가치의 확산 및 동등한 분배는 이상에 그치지 않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솔루션

국가적 차원의 노력 : 건강한 삶에 대한 교육 강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환경과 자신이 속한 사회 및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은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대안학교 : 간디학교 혹은 이우학교의 커리큘럼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우학교의 경우 도시형 대안학교로 도시 안에서 생태적 가치를 찾고, 더불어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농업실습수업, 생태수업, 농촌봉사활동 등 생태 참여적 수업이 필수적으로 커리큘럼에 포함되고, 잔반 남기지 않기, 건강한 시민 되기와 같은 약속을 학생과 학교가 함께하고 있다.

현재 위 두 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많은 경우 졸업 이후에도 농촌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시위나 환경 단체 가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민 차원의 노력 :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노력

1)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역 사회, 학교 그리고 농촌 마을이 삼주체가 되어 생활협동조합을 학습의 장, 문화의 장, 친환경 식품 거래의 장 등 다양한 목적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공생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구체적 실천안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친환경 식품 거래, 주말학교(텃밭 가꾸기, 논어, 연극) 등이 있다.

2)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

범죄와 환경 파괴로 황폐해진

지역에 무단으로 꽃을 심어 안전한 동네로 탈바꿈한 리처드 레이놀즈의 움직임은 영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연 환경을 배척하는 현대



도시인의 생활 양상에 저항하고 있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기른다’는 권리에 대한 투쟁을 하여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염두에 둔 자발적 실천이다.

참고문헌

김창길, 이용선, &이상건.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정책연구보고. 김태형, 권세원, 이윤진. 2012. “서울시민의 개인 및 지역 효과에 의한 건강불평등”, 『서울도시 연구』, 13(3) : 15-35
김지웅. (2010).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나이젤 워버턴. (2011). 철학의 주요문제에 대한 논쟁 (최희봉 역.). 서울: 간디서원
리처드 레이놀즈. (2012). 게릴라 가드닝 (여상훈 역.). 파주: 도서출판 들녘.
이승철. (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최희경. (2013). 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모형: 지역거버넌스 사례. 서울: 집문당.
티머시 비틀리. (2013). 그린 어바니즘 (이시철 역.). 서울: 아카넷
크리스토퍼 베넷. (2013). 윤리란 무엇인가 (김민국 역.). 서울: 지와사랑.
WHO 국제보건기구 홈페이지(http://www.who.int/en/)
건강권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442&cid=40942&categoryId=31721)
Peter Singer,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in H. LaFollette (ed.), Ethics in Practice (Oxford: Blackwell, 2007)



AJOU UNIVERSITY